



## 간추린 청렴 소식

### [1] 고양지청, '청렴누리길 스탬프북' 행사 실시



고양지청은 직접 디자인한 청렴누리길 스탬프북에 코스 완주시마다 스탬프를 부여하는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였습니다.

완주자 대상 완주증&기념품(청렴스카프) 수여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 [2] 서울중앙지검, '오늘 청렴? Oh, 늘 청렴!'

서울중앙지검은 일상 속 청렴한 순간이 담긴 사진과 짧은 글을 함께 제출하는 전 직원 대상 일상 속 청렴 공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모된 210점의 작품 중 최종 선정된 작품을 활용하여 굿즈를 제작·배부하고 전시회도 마련하는 등 홍보하였습니다.

### [3] 원주지청, 'AI, 나도 이제 시작한다!'



원주지청은 AI기술을 수사·사무 업무에 적용시키기 위해 '생성형 AI 세미나'를 진행하고(4회), 이를 활용한 '청렴 AI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인공지능 전문가(송병진 교수님)의 알찬 강연과 접목한 청렴행사에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4] 순천지청, '청렴·SPIRIT 결의대회' 실시

순천지청은 팀별 청렴 표어와 업무의 특성을 살린 SPIRIT을 제출받아 우수작을 선정하고, 이를 청렴 액자로 제작하여 사무실에 부착하였습니다.



청렴한 그대는 Beautiful, 부패한 당신은 Dirty full (우수 표어, 1부장실)  
청사를 방호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진다 (우수 SPIRIT, 방호&청경실)

## 👍 칭찬합니다

### 2024년도 4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5. 1. 17. 대검 감찰부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및 클린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 기록열람당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지원

서울고검 배 0  
안산지청 흥00

부산지검 김00  
천안지청 이00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 자세히 안내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감사했다.

###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제 꿈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곱게 늙어 죽는 것이요.  
 발목이 잘리거나 머리채가 잘리지 않고  
 그저 사는 것이요.  
 운이 좋으면 바닷가 작은 집에서  
 아버지랑 숨어 살 수 있으려나...

드라마 '옥씨부인전' 중

드라마 '옥씨부인전'에서 노비 구덕이는, 자신에게 꿈이 무엇인지 묻는 양반에게 위와 같이 답합니다. 타고난 신분 때문에 굶주림과 폭력,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구덕이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는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언젠가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꿈을 꾸는 구덕이를 보며 삶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누구나 각자 짊어진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박한 행복을 찾으며 희망을 잃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청림이 있는 문화이야기

## 조선시대의 법률전문가들

조선에서 법률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들은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율관(律官)과 민간의 소송 조력인으로 활동했던 외지부(外知部)가 있을 것입니다.

### ● 사대부 관리들의 법률 자문역, 율관(律官)



조선시대 법정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김준근의 <법정변송도>. 국립중앙박물관

율관이란 율학(律學), 즉 오늘날의 법학을 공부하여 잡과의 하나인 율과(律科) 시험에 합격한 기술직 관리들을 말합니다. 율관은 승진이 제한되어 종6품 율학교수(律學教授)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합니다.

율관들은 형조에 예속되어 재판 시 범죄인의 죄목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찾아 주는, 사대부 관리들의 법률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 ● 조선 변호사, 외지부(外知部)

조선시대에도 각종 소송이 많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당시 소송은 모두 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하여 자신이 사는 고을 관아에 제출해야 했는데,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은 전 국민의 5% 밖에 되지 않았다 하니 백성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변호사처럼 백성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바로 '외지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외지부는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들이 송사에 관여하자 송사가 많아지고 재판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성종 9년(1478) 외지부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으나, 그들은 조선 후기까지 은밀히 숨어 활동하며 법과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합니다.



✓ 참고기사 법과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조선변호사 외지부 (국가유산청), 조선시대의 법률 전문가들(대학지성)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는 '천간(天干)'과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地支)'를 조합한 동아시아 전통 시간 체계인 '간지(干支)'에 따르면, 2025년은 무슨 해일까요?

- ① 병자년    ② 갑신년    ③ 을사년

※ 힌트 : Monthly청림 2025년 1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3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5. 2. 16.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1월호 퀴즈 정답은 ① 〇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축!  
당첨

서OO(군산), 김OO(서울북부), 허OO(서울동부), 홍OO(서울남부), 김OO(창원), 이OO(부산고검), 류OO(마산), 문OO(대전), 서OO(울산), 김OO(외부)

## 청림 한 컷



- ✓ 참고문헌 제철 행복(김신지)
- ✓ 그림출처 게이티이미지뱅크

### ♣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춘은 24절기 중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절기로, 옛사람들은 입춘부터 '진짜 새해'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합니다. 그래서 입춘에는 후시 모를 불운은 막고 행운을 불러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록된 풍속이 많다고 하죠.



보리뿌리점(보리 뿌리를 캐봐서 세 가닥이 넘으면 풍년, 두 가닥은 평년, 한 가닥이면 흉년), 오곡으로 점치기(콩, 메밀, 수수, 팥 등 오곡의 씨앗을 낮은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풍작이 될거라 믿음) 등으로 한 해 운을 점쳐보며 희로애락이 교차했을 옛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라 하여 입춘 전날 밤에 남몰래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한 해 동안 나쁜 일을 면할 수 있다고 믿어 밤을 틔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기도 하고, 아픈 사람 집 앞에 약을 지어다 놓기도 했다 합니다. 요행을 바라기 보다는 삶에 성의를 다하며 좋은 기분을 챙기고 다시금 희망을 품었을 옛사람들의 지혜가 새삼 마음을 두드립니다.

청림,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